

(성경) 계6:1-22:17(13:1-18)

(주제) 어린양께서 그 책의 '일곱 개'의 封印(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과 구속의 실현들(17)

- I. 1,2 어린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II. 3,4 어린양께서 '둘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III. 5,6 어린양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IV. 7,8 어린양께서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V. 9-11 어린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VI. 12-7:17 어린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 VII. 8:1-22:17 어린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지난 주일까지는,

VII. 8:1-22:17 어린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어난 일들

1. 어린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를 보았다.(1,2)
2.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은 것을 보았다.(3-5)
3.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였다.(6)
4.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7a. 7)
5.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8상. 8,9)
6.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10상. 10,11)
7.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12상. 12,13)
8.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9:1상. 1-12) -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1,2)
9.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9:13상. 13-11:14) -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13하)
10.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15상. 11:15-22:17)
 - 1)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씀했다. -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15하)
 - 2)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다.(16. 16-18)
 - 3)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19상. 19)
 - 4)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났다. - 한 여자가 있었다(12:1a. 1,2)
 - 5)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3a) - 큰 붉은 용이 있었다.(3c. 3,4)
 - 6)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5상. 5,6)

지난 주일에는,

7)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7상. 7-9)

(1)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7하)

(2) 그러나 이기지 못하였다.(8상)

(3)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였다.(8하)

(4)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었다.(9상)

(5)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었다.(9하)

8)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10상. 10-12)

(1)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10중)

(2)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10하)

(3) 그(우리의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다.(11상)

(4) 그(우리의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11하)

(5)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12상)

(6)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12중)

(7)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12하)

9)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13)

10)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었다.(14)

11)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15)

12)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켰다.(16)

13)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였다. -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갔다.(17)

오늘은,

14) 두 짐승의 출현(13:1-18)

A. 첫째 짐승의 출현 -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1a. 1)

(1)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1b)

① 그의 뿔들 위에는 - 열 개의관이 있었다.(1c)

② 그의 머리들 위에는 -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었다.(1d)

- [KJV 흠정역] 계 13: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 [개역 개정역]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 11:7절에서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뒤에 13: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비하여, 본 13: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환상은 단7장을 배경으로 하여 17장(7-14)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바다’는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7:15).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다’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그 짐승은 구약 성경의 ‘리워야단’을 연상시킵니다(시74:13, 14. 104:26).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리워야단’과 ‘라합’, ‘뱀’ 등의 짐승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굽’과 ‘앗수르’ 등의 열강들”을 의미합니다(사27:1. 51:9. 겔32:6-8).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본절의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기 보다는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Johnson, Hendriksen).

*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를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 여기에 나타난 짐승의 모습들은 12: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여기서의 짐승은 ‘뿔들’에 면류관이 얹혀 있는 반면에, 12:3절의 용에게는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열개의 뿔’은 단7:7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니엘서에서 이 뿔들이 ‘열 왕(王)’을 상징하듯이, 여기서의 ‘열 뿔도 열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7:12). 이러한 열 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17:12 Mounce).

또한 ‘일곱 개의 머리’는 ‘완전 수’와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12:3), ‘그 짐승의 그 권세가 그 용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시사합니다(4절).

여기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는 것에 관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Bede, Hengstenberg). 즉, “아우구스투스(Augustus, ‘존엄한 자’)”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네로’는 ‘鑄貨(주화)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 넣었으며’, ‘도미티안’은 “로마인들로부터 ‘우리의 주(주)이시며 하나님(Dominus et Deus noster)으로 불리운 사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로마 황제들만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며 종말(초림에서 재림까지)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악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Ladd, Johnson, Mounce, Hendriksen). 요컨대, “이런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17:3).

(2) 내가 본 그 짐승의 모습 - 표범과 비슷했다.(2a. b,c)

① 그의 발은 - 곰의 발 같았다.(2b)

② 그의 입은 - 사자의 입 같았다.(2c)

(3) ‘용’이 그 짐승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었다. - ①자기의 ‘권능’과 ②자기의 ‘자리’와 ③‘큰 권세’(2d)

- [KJV 흥정역] 계 13: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 [개역 개정역]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

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 이는 '짐승의 형상'에 관한 묘사입니다. 짐승의 형상은 단7:4,5절에 언급된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즉, '표범과 비슷하고'는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과 같고,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며, '사자의 입'은 '첫 번째 짐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 짐승의 흉하고 사나운 성격'을 나타냅니다.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을, '곰'은 '힘과 끈기'를,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이 "전에 있던 어떠한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욱 무서운 권력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임을 시사"합니다(Alford, Hughes).

*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 여기서 '용', 즉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12:9)', 그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용', 즉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는 존재입니다<요1:6-10(7). 약2:19>. 그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었습니다(12:9). 지상으로 쫓겨난 용은 온 세상(3절-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역)에 대한 그 자기의 지배권을, 그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궁극적으로 신성모독을 讓渡(양도)"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아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엡6:10-12).

(4)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다.(3상. 3)

- ① 온 세상이 놀라며(3중)
- ② 그 짐승을 따르더라(3하)

- [KJV 흥정역] 계 13: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 [개역 개정역] 계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상처를 입은 그 머리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네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 머리가 '네로'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Weiss, Moffatt).

네로는 A.D.64년에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하였습니다. 폭군 네로는 그의 통치 말기에 실정으로 말미암아 근위대와 원로원에서 쫓겨나 치욕적인 죽음을 강요받았는데, 그는 그 죽음을 거부하고 68년 6월에 교외 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도 극악무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사실로 믿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장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그는 동방의 파르디아(Parthia)로 갔다가 다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왕권을 회복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네로 재현설'이라 하는데,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본문의 상한 머리 하나가 네로라고 주장합니다.

(2) '카토릭교회의 초기 교황들, 즉, 그레고리 7세에서 이노센트 3세까지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Bengel).

(3) 머리의 회복이 아니라, 짐승의 회복으로 상처의 회복은 ‘네로의 죽음 이후 혼란되었던 로마를 황제 베스파시안(Vespasian, A.D. 69-79)이 바로잡아 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여 단지 짐승이 그전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Mounce).

(4) “일곱 머리를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이라고 주장한다(Hendriksen).

예를 들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네로 황제(Nero, A.D. 54-68)가 죽은 뒤, 다시 도미티안 황제(Domitian, A.D. 81-96)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짐승이 다시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견해 중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일곱 개의 머리 중 하나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창3:15. 히2:14-18). 따라서 본 3절에서 비록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짐승은 아직 이 역사의 현실에서는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여 미혹하는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20:1-15).

*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 여기서 ‘온 세상’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자들’로서, 8-10(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영역(8)’을 일컫습니다<‘세상’에 관한 참고-김용남 목사. 요한일서 강해설교요일-2:1-29(15-17)-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 -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한다.(4). 2019년11월17일(주)>

- [KJV 흥정역] 계 13:8-10

8.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5) 3중(온 세상이 놀라며), 하반절(그 짐승을 따르더라)의 ‘그 결과’(4)

- 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였다.(4상)
- ②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4중)
- ③ 이르되 -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4하)

- [KJV 흥정역] 계 13: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 [개역 개정역]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부여한 그 용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며,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12:9)’, 즉, 그 용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권력을 신격화 하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는, 정반대의 하나님에 관한 찬미 구

절인 출 15:11절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시35:10, 113:5)와 對照(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짐승을 하나님과 비교한 불경스럽고도 참람한 신성모독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짐승은 인류 전체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로 강한 자임을 과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6) 또 용이 그 짐승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었다.(5)

①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5상)

②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 할 권능(5하)

- [KJV 흥정역] 계 13: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 [개역 개정역] 계 13: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은, 단7:8절의 ‘넷째 짐승’으로부터 돌아난 뿔에게 주어진 ‘큰 말하는 입’과 유사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입’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6절, 단7:25, 11:36).

‘마흔 두 달 동안’은 ‘그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11:2, 3.12:6,13). 이때 그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15절, 11:2,9).

여기서 ‘주고, 주매’는, 그 짐승의 이러한 권한은 용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과 그 짐승이 용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크게 또는 하나님 중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짐승과 용의 모든 그 권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 하에 주어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7) 앞에 5절의 그 결과(6-8)

① 그가<용에게 권능을 받은 그 짐승(5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였다.(6a, 6)

a. 그분의 이름과(6b)

b. 그분의 성막과(6c)

c.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을 모독하였다.(6d)

- [KJV 흥정역] 계 13:6.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 [개역 개정역]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모독하더라’는 ‘신성을 모독하되 -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살후2:4). 그 짐승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속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즉, 안티오쿠스(Antiochus)의 신성 모독이나(단7:25, 11:36),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건들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이었으며, 지극히 참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 뿐 만 아니라, 역사상 사탄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자해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계속 자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 즉 현실 역사상의 하늘에 속한 주님의 교회(그리스도인들)(엡2:6, 빌3:20, 골3:1)과 천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성도들(히12:1)’을 포함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천사들까지(12:7)’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그 짐승과 용으로 상징하는 바, 그것이 휘방하고 대적하는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마10:28. 롬8:18. 31-39).

② 또 그가<용에게 권능을 받은 그 짐승(5절)> ‘성도들과 전쟁’한다.(7상. 7,8)

a.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7하)

b. 7절하반절의 ‘그 결과’ -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8)

- [KJV 흠정역] 계 13: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 [개역 개정역]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 [KJV 흠정역] 계 13:8.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 [개역 개정역]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의 ‘권능’은 이미 앞에 4-6(5)절에서 언급된 바, ‘그 용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 [KJV 흠정역] 계 13: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 [KJV 흠정역] 계 13: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 [KJV 흠정역] 계 13:6.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여기서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에서 ‘성도들과 전쟁하여’는 ‘용과 짐승’이 상징하는 그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16. 11:7. 12:7,17. 16:14. 17:14. 20:8. 고후10:4).

또한 여기서 ‘이기는 것을 허락 받고’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근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여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마 10:28).

여기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는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탄은 자신의 그 전 세계적인 활동의 권세를 허락 받은 것을 착각하여, 자신이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합니다(눅4:4-7).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하며 짐승은 패배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마 28:16-20. 요10:22-42(27,28). 히2:14-18)

8절에서 ‘생명책’에 관한 것은, 구약성경 출32.32,33에서 “모세가 금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자신의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말한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빌4:3), 본 요한 계시록에서는 ‘일곱 번’ 나타납니다(3:5, 13:8, 17:8, 20:11-15, 21:27, 22:19). 종합 해 보면, 여기서 ‘생명책’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선택’과 함께 그 선택자들의 ‘창세로부터’의 그 ‘행위까지를 포함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본 8절과 21:27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린양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5:9,10).

여기서 헬라어 문법상 ‘창세로부터’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수식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한’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1)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수식할 경우 -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게 된다.

이 경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강조한다(8절, 17:8, 뵤전1:20).

(2) ‘죽임을 당한’을 수식할 경우 -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게 된다.

헬라어 문법상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나 여기서는 ‘내용상 후자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다를지라도, 그 의미의 결론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곧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며, 그들이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짐승의 추종자가 되어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용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9, 9,10)

a.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듣기를 원한다.(9)

- [KJV 흥정역] 계 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 [개역 개정역] 계 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구절들과 같은 의미’이며(2:7,11,17,29, 3:6,13,22),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마11:15, 막4:9). 사도 요한은 본 9절을 진술함으로써, “앞으로 언급하게 될 내용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들을 귀 있는 성도들만이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b.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10하)

a)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10상)

b)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10중)

이는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0절하반절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라고 말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10절의 모든 내용은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인 것입니다.

본 10절의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칼로 죽임을 당하리니’의 내용은, 렘15:2, 43: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상,중의 말씀이 특히 ‘受動態(수동태)’이나, 能動態(능동태)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는 ‘KJV 흥정역’ 보다는 ‘개역 개정역’이 원문과 문맥에 맞게 번역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KJV 흥정역] 계 13:10.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 [개역 개정역] 계 13: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특히 여기서 ‘칼로 죽이는 자는(KJV 흥정역)’, ‘칼에 죽을 자는(개역 개정역)’에서 ‘죽이는’, ‘죽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ἀποκτανθῆναι(아포크탄세나이)라는 말로서, 이는 ‘受動態(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 ἀποκτανθῆναι<(아포크탄세나이)-동사-부정사-과거-受動態(수동태)>

* 기본형 - ἀποκτείνω(아포크테이노)

* 뜻 - ‘공공연히 살해하다’, 상징적으로 ‘파괴하다’,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 ‘도살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다’)은 유. ‘일게 하다’, ‘폐지하다’ - 롬11:3 - to kill. killeth. kills.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사로잡히거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인내와 충성심을 表明(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2:10. 3:5,10. 빌1:28).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인내’인 것입니다(약1:2-4. 롬8:18).

오늘 講說(강설)의 核心(핵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4) 두 짐승의 출현(13:1-18)

A. 첫째 짐승의 출현 -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1a. 1)

(1)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1b)

① 그의 뿔들 위에는 - 열 개의 관이 있었다.(1c)

② 그의 머리들 위에는 -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었다.(1d)

(2) 내가 본 그 짐승의 모습 - 표범과 비슷했다.(2a. b,c)

① 그의 발은 - 곰의 발 같았다.(2b)

② 그의 입은 - 사자의 입 같았다.(2c)

(3) ‘용’이 그 짐승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었다. - ①자기의 ‘권능’과 ②자기의 ‘자리’와 ③‘큰 권세’(2d)

(4)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다.(3상. 3)

① 온 세상이 놀라며(3중)

② 그 짐승을 따르더라(3하)

(5) 3중(은 세상이 놀라며), 하반절(그 짐승을 따르더라)의 ‘그 결과’(4)

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였다.(4상)

②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4중)

③ 이르되 -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4하)

(6) 또 용이 그 짐승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었다.(5)

①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5상)

②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 할 권능(5하)

(7) 앞에 5절의 그 결과(6-8)

① 그가<용에게 권능을 받은 그 짐승(5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였다.(6a. 6)

a. 그분의 이름과(6b)

b. 그분의 성막과(6c)

c.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을 모독하였다.(6d)

② 또 그가<용에게 권능을 받은 그 짐승(5절)> '성도들과 전쟁'한다.(7상. 7,8)

a.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기 때이다.(7하)

b. 7절하반절의 '그 결과' -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8)

(8)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9,10)

a.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듣기를 원한다.(9)

b.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10하)

a)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10상)

b)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10중)